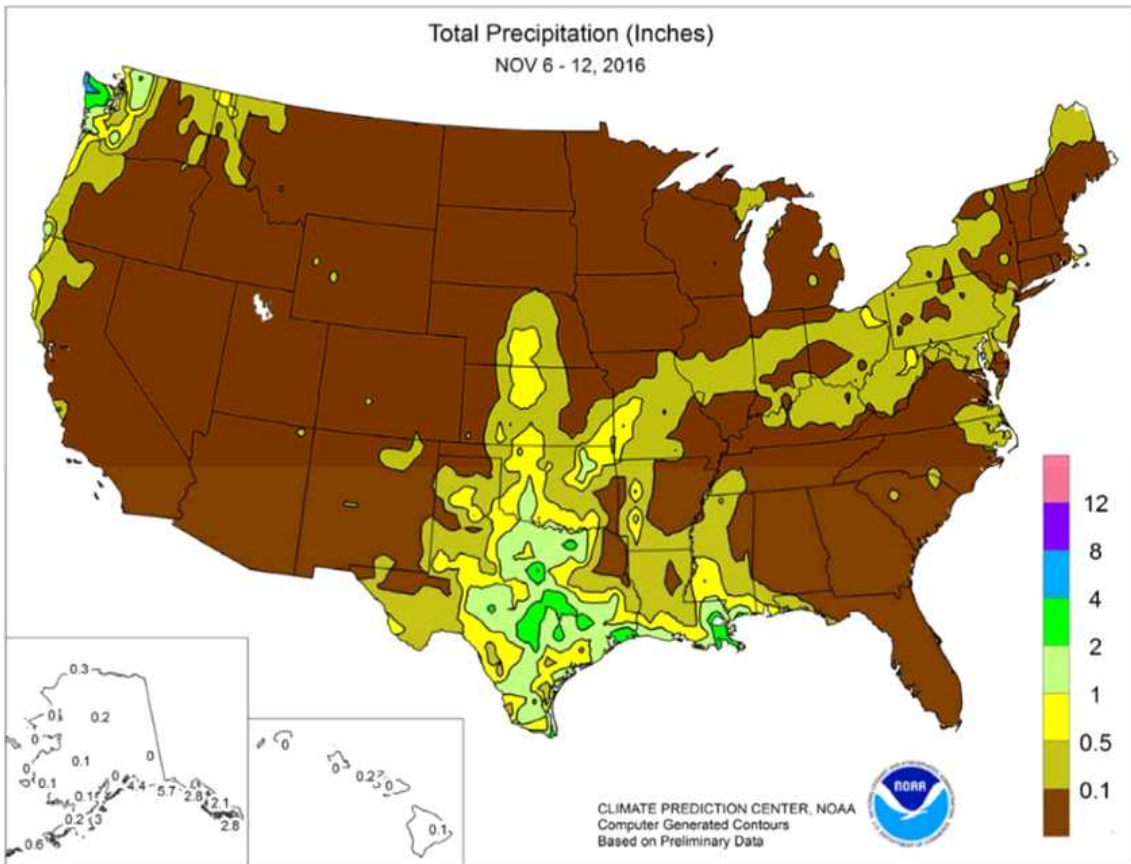


11월 1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46)

□ 미국 기후 현황(11/06~11/12)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미 대륙 전역에 이어진 가운데, 대서양 연안의 일부 주 및 태평양 북서부 일대에서는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북부 및 중서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평년에 비해 기온이 10~18°F 이상 높았다.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중서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동부 내륙에서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9월 중순 비가 내린 이후 더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걸프 만 일부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완연한 가운데, 와이오밍의 La Crosse와 일리노이의 Rockford에서는 각각 11월 9일, 11월 11일에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San Diego에서는 11월 9일 낮 최고기온이 96°F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11/07~11/13)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부 평원의 텍사스 중부 등에서는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로키산맥 북부에서부터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F 이상 높았다. 대서양 연안 일대에서는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 옥수수

11월 13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3%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 다코타 등에서는 수확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각각 17%p, 15%p, 14%p씩 증가했다.

■ 대두

지난 11월 13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7%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2%p 앞서는 수치이다. 미시간과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수확률이 90%를 넘어섰다.

■ 겨울밀

11월 13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발아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84%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가 생육 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11월 13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8%p 낮은 수치이다. 아리조나, 캔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 기타작물

11월 13일 기준 땅콩의 수확률은 92%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p 앞서고 있다. 알라배마,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에서는 수확작업이 종료되었다.

■ 생산요약

옥수수: 생산량은 152억 부셸로 전망되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12% 증가한 수치이다. 에이커 당 생산량은 175.3 부셸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6.9 부셸 증가한 수치이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두: 생산량은 43억 6천 부셸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11% 증가한 수치이다. 단위당 생산량은 52.5 부셸로 지난해보다 4.5 부셸 증가한 수치이다.

면화: 생산량은 1천 6백만 pound bale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 증가한 수치이다. 단위당 생산량은 803 파운드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6파운드 증가한 수치이다. Upland cotton 생산량은 1천 5백만 pound bale로 예상되고, Pima cotton 생산량은 562,000 pound bale로 예상된다.

□ 세계 기후 현황(11/06~11/12)

■ 유럽: 폴란드에서는 고기압이 오랫동안 머물렀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졌다. 서부와 남부에서는 저기압이 몇 차례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10~40mm 내외의 비 또는 눈이 내렸다. 북부와 동부의 독일, 폴란드 중부 등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 3~8°C까지 내려갔다. 스칸디나비아 및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영하 5~15°C까지 내려갔다. 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기온이 5°C 미만에 머물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2~1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남풍이 불면서 낮 최고기온이 10°C 초중반까지 올랐고, 흑해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초중반까지 올랐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중부 및 북부에서는 눈이 내렸다(강수량 환산 10~65mm 내외).

■ 동아시아: 양쯔강 일대와 북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Henan, Anhui, Jiangsu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부의 Hebei, Shandong 등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은 10~15°C 내외를 유지했고, 황하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 호주: 서호주 일대의 밀, 보리, 캐놀라 재배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남부와 동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다.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남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Parana 강 하류 (Buenos Aires 북부, Entre Rio, Santa Fe 남부 등) 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Buenos Aires 남부와 우루과이 일대에서도 맑은 날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북쪽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70mm 이상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북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2°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도 30°C 중후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7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p 높은 수치이다. 옥수수의 수확률은 37%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9%에 비해 2%p 낮은 수치다.

■ 브라질: 중부와 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동부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북부 내륙의 Bahia, Tocantins 등에서도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낮 최고기온은 여전히 30°C 중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Rio Grande do Sul 북동부에서부터 Minas Gerais 남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11월 7일 기준 1기 옥수수와 대두 파종률은 각각 99%,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1월 10일 기준 파종률이 71%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두 파종률은 29%로 나타났다.